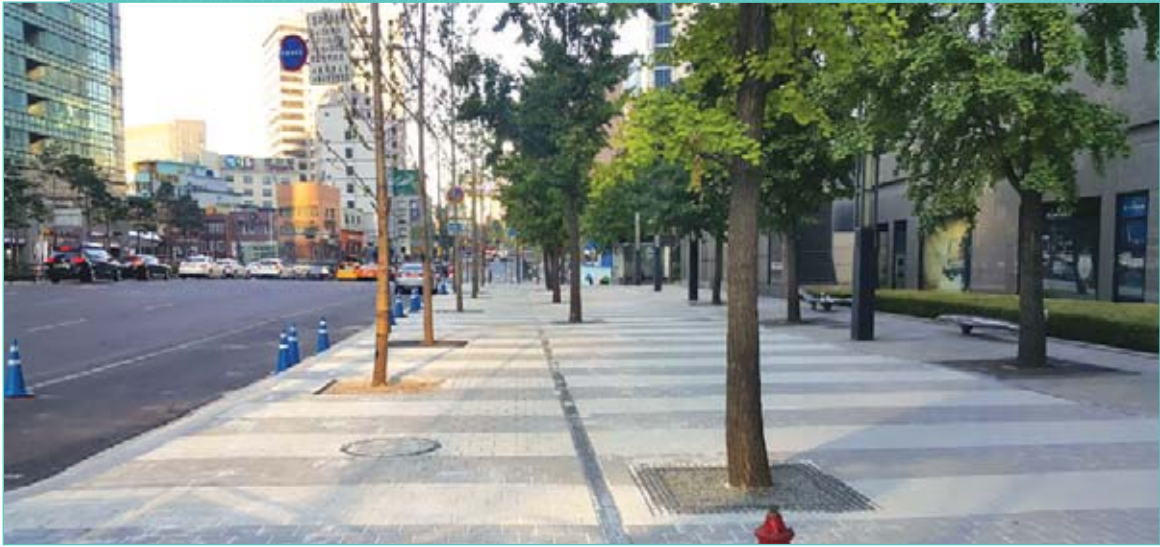


안전한 도시
006

안전한 보행환경, 사람 중심의 쾌적한 공간 퇴계로, 만리재로 도로공간 재편



퇴계로, 만리재로 공간재편 사업이 완료되면 퇴계로가 주민과 시민, 내외국인 관광객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보행편의 중심의 열린가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걷고 싶은 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Tip!

워커블 시티(Walkable City)

'걸을 수 있는 도시. 워커블 시티(Walkable City)'가 도시의 미래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즘, 서울이 워커블 시티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로 7017 보행길과 이어지는 퇴계로, 만리재로도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3708-2567



보행결과
개편도

2015.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서울 대표 보행친화거리로 재탄생한 퇴계로

서울시는 서울로 7017 보행길과 이어지는 퇴계로와 만리재로의 도로공간을 재편하여 사람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퇴계로 도로공간재편 사업은 사대문안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공간 재편을 통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실상 첫 번째 사업이었다.

퇴계로는 지하철 4호선 회현역 7번 출구부터 퇴계로2가 사거리까지의 거리로 차로 축소, 교차로 개선, 불량도로 포장, 가로수 제거 및 식재, 벤치 설치 등을 진행했다.

또한, 많은 보행량에도 불구하고 보도상 지장물로 통행에 불편함이 많았던 남대문시장 구간은 차로를 줄이고 보행공간을 확보했다. 왕복 6차로에서 5차로로 1개 차로를 축소해 보도폭을 12.5m까지 넓혔다. 보도 포장은 서울로 7017 보행길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고, 보행에 불편을 주었던 한전 지상기기, 가판대, 물건적치 등을 정비해 보행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하는 만리재로

서울로 7017과 직접 연결돼 공덕오거리까지 이어지는 만리재로 1.5km가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했다. 만리재로는 기존 왕복 4차선과 6차선이 혼재하던 차로를 기본 차로 수가 4차선이 되도록 조정하고, 줄어든 차선만큼 도로 폭을 넓혔다. 낙후된 보도 포장은 새롭게 정비하고, 보도에 녹지를 확대해 걷고 싶은 푸른 보행길을 만들었다. 또한,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신호체계를 조정하는 등 교통환경도 개선하였다.

서울로 7017 인근 4개 주요도로인 퇴계로, 중림로, 만리재로, 소월길 중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한 만리재로는 2017년 1월 4일 착공되어 2018년 4월 30일 완공했다.

퇴계로, 만리재로 도로공간 재편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2월 설계 착수 이후,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참여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을 진행하였다.

